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8월 4주~9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도시개발] 시나르마스-소지츠, Cikarang 근로자 대상 주거단지 개발⁽¹⁾(Mediaindnesia, 8/11)
 - 시나르마스랜드와 일 소지츠는 거주수요 확대에 대응, Cikarang 소재 델타마스 근로자 7만명을 대상으로 Meilora 주거단지 개발 추진. 델타마스는 약 3,200ha 규모 복합 신도시로 개발 중이며, 현재 산업단지 근로자 상당수가 외부 지역에서 장거리 통근 중
 - 시나르마스 그룹 계열 상장사 PT Puradelta Lestari는 양사가 통합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며 청년층 전문직 종사자, 신혼부부, 독신근로자 등이 주요 수요층이라 밝힘
- [도시개발] PT KAI, Manggarai역 인근 서민주택 착공 예정⁽²⁾(Bisnis, 8/18)
 - PT Kereta Api Indonesia(PT KAI)는 300만호 주택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Manggarai 지역 2.2ha 규모의 부지에 8개 동의 서민주택 건설 추진, '26.8.21 착공식 개최. 자회사 PT KAI Properti Manajemen이 부지 정비 진행 중, 현재 Blok G 구역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Blok F는 '26.9월 내 완료 목표
 - 동 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약 45~54㎡ 규모로 청년층 가구 및 다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예정. 또한 동 사업은 '28년 초 준공 목표, PT KAI는 PT Bank Tabungan Negara와 협약 체결 및 건설 자금 조달 지원을 추진 중
- [인프라] Manggarai-Dukuh Atas LRT 연장사업, '28년 완공 추진⁽³⁾(Bisnis, 8/20)

1) <https://mediaindonesia.com/ekonomi/920657/sinar-mas-land-sojitz-bidik-kebutuhan-70-ribu-pekerja-kawasan-industri-deltamas>

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18/45/1997150/konstruksi-rusun-manggarai-segera-dimulai-groundbreaking-21-agustus-2026>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20/98/1997742/investasi-rp21-triliun-pramono-incar-proyek-lrt-manggarai-dukuh-atas-rampung-akhir-2028>

-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은 Manggarai-Dukuh Atas LRT 연장사업에 약 1.2억불(Rp2.1tril)을 투입, '28년 말까지 완공 추진. 연장 구간은 자카르타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노선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대중교통 통합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
- 현재 Velodrome까지 운행하는 Jakarta LRT의 이용객은 일 4천 명 수준이나, Manggarai-Dukuh Atas 노선 연장 시 일 6만~8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 자카르타의 교통망 연결률은 93%, 대중교통 이용률은 31% 이상으로 기존 23%에서 8%p 상승 등 지속적 증가 추세

○ [플랜트] Danantara, 족자카르타 WTE 사업 추진⁴⁾(CNN Indonesia, 8/13)

-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은 자회사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를 통해 족자카르타 지방정부들과 약 1.68억불(Rp3tril) 규모의 WTE 시설 개발 추진, '26.12월 착공 및 '28년 말 준공 목표. 동 사업은 족자카르타시, Sleman군, Bantul군 폐기물 처리 및 환경문제 해결 목적, 현재 검토·설계·부지 확보 준비 단계
- 족자카르타 시장 Hasto Wardoyo, Sleman군 군수 Harda Kiswaya, Bantul군 군수 Abdul Halim Muslih 및 욱야카르타 특별주 주지사 Sri Sultan Hamengku Buwono X는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또한 '28년 3~4분기에 WTE 개시 계획, 폐기물 처리량은 일일 약 1,099톤으로 예상

○ [플랜트] 1.7억불 규모 브카시 WTE 사업 착공⁵⁾(Jakartaglobe, 8/26)

- 정부는 브카시 지역의 매립지 용량 초과에 따른 환경·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1.7억불(Rp3tril) 규모의 WTE 사업 착공, '28년 중반 가동 목표. 동 사업은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DIM),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Denera)가 추진
- Ciketing Udik 및 Bantar Gebang 일대에서 하루 최대 1,500톤의 폐기물을 처리. 생산 전력은 PT PLN이 0.2불/kWh에 전량 구매할 예정

4)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60812211007-92-1391637/danantara-bakal-bangun-psel-rp3-t-tuntaskan-polemik-sampah-di-y>

5) <https://jakartaglobe.id/business/indonesia-breaks-ground-on-169-million-bekasi-wastetoenergy-plant>

- 또한 이동식 화력자 소각 기술과 대기 오염 방지 시스템을 도입, EU 산업 배출 지침 기준에 부합하도록 진행할 계획. 신속한 폐기물 감량 및 전력 공급,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플랜트] 총 5.2GW 규모 태양광 14건 착수⁶⁾(Bisnis, 8/25)

- 프라보워 대통령은 100GW 태양광발전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총 5.2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 14건을 공식 착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Bahlil Lahadalia는 사업 발전단가가 kWh당 5~6센트 수준이라고 설명. 해당 단가는 배터리 사용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저장용량 및 사용 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배터리 저장 시간은 4~24시간 범위에서 사업별로 결정 예정
- 특히 발리 지역의 1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을 적용, 디젤 발전 의존도 및 연료 사용량 감축 추진. 동 사업을 통해 연간 약 60만kl의 디젤연료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플랜트] '26년내 30GW 규모 태양광 사업 착수⁷⁾(Bisnis, 8/19)

- 정부는 '26년 30GW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착수, 입찰 개시 예정. 동 사업은 100GW 태양광발전 확대 사업의 1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목적, Bahlil 장관은 전력공사 PLN과 사업 계획 협의
- 또한 '25~'34년 전력공급사업계획(RUPTL)에 따라 태양광 · 지열 · 수력 · 가스 등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확대할 예정. 특히 발전설비의 약 70~75%를 신재생에너지 · 배터리 · 양수발전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
-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도 '26년 30GW 태양광발전 확대 및 13GW 디젤발전소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100GW까지 구축할 예정

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25/44/1998751/14-proyek-plts-100-gw-yang-diresmikan-prabowo-bertarif-5-6-sen-per-kwh>

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19/44/1997535/kebut-proyek-plts-100-gw-menteri-bahlil-buka-tender-tahap-awal-30-gw>

○ [인프라] 인니 유료도로, FDI 20억불 유입⁸⁾(Bisnis, 8/12)

- 공공사업부(PU) 장관 Dody Hanggodo는 유료도로 인프라 개발 관련, FDI가 20억불(Rp36tril)에 도달했다고 밝힘. 이를 활용하여 유료도로망을 확충, 산업단지·항만·공항·경제특구·관광지 접근성 개선 및 경제 성장 거점 간 연결 강화를 통한 추가 투자 유입 추진 예정
- 유료도로 투자 금액은 약 432.8억불(Rp779tril)이며,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76개 노선, 총 3,128km로 집계. 지역별로 자바 1,842km, 수마트라 1,116km, 칼리만탄 97.27km, 술라웨시 61.4km, 발리 10km이며, '78~'14년까지의 유료도로 누적 길이는 789.12km 기록

○ 중부자카르타 Bundaran HI역 대합실 확장 추진⁹⁾(Bisnis, 8/24)

- 자카르타 주정부와 PT MRT Jakarta, PT Integrasi Transit Jakarta(ITJ)는 MRT, 상업시설, 보행로 및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확장 사업을 추진. 현재 약 11,000명 수준인 역사 이용객은 향후 1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약 4,439㎡ 규모로 조성 목표
- 또한 향후 Wisma Nusantara 및 Plaza Indonesia와 연결하여 다목적으로 활용 예정, 이용객 증가에 따른 보행로 혼잡 감소 위해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 MRT와 주변 시설 간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상업활동을 지원하도록 조성할 계획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한국, 인니 원전 투자·협력 의향 표명¹⁰⁾(Jakartaglobe, 8/31)

- 주인니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니 정부가 원전 도입을 결정할 경우 한국이 주요 협력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투자·협력 가능성을 제시. 인니는 석탄 의존도가 높은 전력구조 개선 및 청정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32년 최초 원전 상업 운전을 목표로 도입 추진 중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12/45/1995656/menteri-pu-investasi-asing-di-sektor-jalan-tol-tembus-rp36-triliun>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24/98/1998653/proyek-extended-concourse-mrt-perkuat-integrasi-di-pusat-jakarta>

10) <https://jakartaglobe.id/business/korea-pitches-nuclear-power-investment-for-indonesia>

- 한국은 26기 원전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31.7%로 집계.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분야의 주요 국가로, 인니의 원전 도입 결정 시 기술·사업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원전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최종 도입여부 및 사업방식은 인니 정부, 국민, 이해관계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음

○ 인니, 카타르 주택개발 투자 관련 협의체 구성¹¹⁾(Antara, 8/19)

- 주택정주부(PKP)는 자카르타 Kampung Bandan 주택개발을 위한 카타르 투자계획과 관련, 재정·개발감독청(BPKP), 국영기업관리청(BP BUMN), PT KAI, 통계청(BPS) 및 카타르 측과 협의체 구성. 동 협의체는 사업부지 활용 계획, 투자 방식 및 사업 관리체계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조율
- PT KAI와 PKP는 카타르 투자사 Al Qilaa International Group 과 협력, 300만호 주택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Kampung Bandan 공동 주택 개발 추진. 동 사업은 '26.6월 발표한 100만호 공동주택 투자 사업의 후속 사업이며, 투자사 Al Qilaa는 주택 건설 투자 의지를 재확인

○ 인니-독일,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의지 재확인¹²⁾(Antara, 8/19)

-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장관 Reem Alabali-Radovan은 '26.8.18~20일 인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지원 및 양국 협력 확대 의지 표명,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¹³⁾ 공동 주도 등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추진
- Radovan 장관은 인니를 독일의 핵심 협력국이자 신규 중점협력국 9개국 중 하나로 평가, 개발 정책을 통한 독일 기업과의 연계 강화 의지 표명.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인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독일 경제 역시 활성화될 전망

11) <https://ambon.antaranews.com/berita/340357/menteri-pkp-ungkap-pembentukan-tim-bersama-terkait-investasi-qatar>

12) <https://en.antaranews.com/news/427789/germany-reaffirms-support-for-indonesias-energy-transition>

1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

- 주인니 독일대사 Ralf Beste 역시 동 방문을 통해 독일의 에너지 · 지속가능성 분야 기여와 인니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협력 의지 강조

○ 아이슬란드 기업, 인니 지열 · 석유가스 시추사업 협력¹⁴⁾(Bisnis, 8/27)

- PT Pertamina Drilling Services Indonesia는 아이슬란드 Icelandic Drilling Company Limited와 MOU를 체결, 인니 및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지열 · 석유가스 시추사업 협력 및 확대 추진. 양사는 육상 시추 설비 · 장비 공급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 인니 시장을 비롯한 해외 사업 기회 발굴 목적
- PT Pertamina Drilling은 동 협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 이를 통해 시추 역량과 사업 경험 강화 및 국제시장 진출 확대 계획. Icelandic Drilling Company 역시 인니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양사의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기대

○ 인나-호주, 식량 ·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¹⁵⁾(Antara, 8/27)

- 인니는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 호주와 식량 ·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추진. 외교부 장관 Sugiono는 해양 · 경제 · 안보 · 식량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 현재 호주가 비료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통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설명
- 양국은 '26.8월 멜버른에서 외교 · 국방장관회의를 개최, 프라보워 대통령과 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체결한 Jakarta Treaty 2026의 이행방안을 논의. 동 조약은 고위급 협의 정례화 및 상호 지원에 관한 내용
- 또한 인니 내 공동 군사훈련, 인니 고위 장교의 호주 국방군 파견, 군사교육 교류 확대 및 Danantara의 호주 투자 관련 MOU 등을 포함

1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27/44/1999360/pertamina-drilling-gandeng-perusahaan-islandia-bidik-bisnis-geotermal-migas-global>

15) <https://en.antaranews.com/news/428701/indonesia-pushes-resilience-partnership-with-australia-on-food-energy>

○ ESR그룹 - INA, 인니 물류 인프라 투자 확대¹⁶⁾(Investor, 8/11)

- 글로벌 물류 · 산업용 부동산 개발 · 운용사 ESR Group과 인니 투자청(INA)은 제조업 · 전자상거래 · 소비재 · 공급망 성장에 따른 현대식 물류창고 및 산업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 물류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양측은 Cikarang 및 Karawang 소재 3개 현대식 물류시설에 공동 투자 중, 총 임대가능면적은 약 200,000m²로 3PL · 소비재 ·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활용
- INA는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략적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 ESR Group은 인니 물류 및 산업용 부동산 투자를 확대할 예정. 양측은 현대식 물류창고를 통한 공급망 효율성 제고 및 산업 발전 지원과 더불어 인니 물류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확대 목표

3. 정부 정책동향

○ 인니, 식량안보 · 에너지 자립 중심 '27년 예산안 발표¹⁷⁾(Antara, 8/16)

- 정부는 '27년 예산안에서 국가지출 229.4억불(Rp409.7tril), 세입 191.9억불(Rp342.6tril) 및 경제성장률 5.8~6.5%를 발표, 식량안보 · 에너지 자립과 교육 · 보건 · 산업화 · 인프라 · 주거 · 빈곤감축 · 농촌개발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식량안보에 10.9억불(Rp19.5tril) 배정, 쌀 농지 확대, 관개시설 개선 및 농어민 지원예정
- 에너지 자립을 위해 보조금으로 15.3억불(Rp27.3tril)을 편성, 100GW 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및 디젤발전 단계적 폐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추진. 아울러 '26.7월부터 시행한 B50 바이오디젤 정책을 통해 외화 절감, 수입 식량 ·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 정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국민 구매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1.5~3.5%로 관리, 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부정 사용 방지 목표

16) <https://investor.id/business/449956/esr-dan-ina-perkuat-infrastruktur-logistik>

17) <https://en.antaranews.com/news/427347/food-energy-self-reliance-anchor-indonesias-2027-state-budget>

○ 프라보워 대통령, 저소득층 1,100만 토지 등기 추진¹⁸⁾(Bisnis, 8/31)

-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용 1,100만 토지의 등기를 '29년까지 추진, 농업공간계획부 사무총장 Dalu Agung Darmawan은 토지 권리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수혜 계층의 자산 기반 경제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설명. '26~'27년 300만호 주택사업을 우선 추진 후 800만 토지에 대해서는 '28년 500만, '29년 나머지 토지 추진 예정
- 농업공간계획부는 주택정주부(PKP) 및 중앙통계청(BPS)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규모 토지 등기를 추진, 합동 지침을 마련해 전국 수혜자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 대상은 정부 지원사업 주택,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 활용 주택, 자립형 주택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 Danantara, '26년 국영기업 이익 202억불 목표¹⁹⁾(Jakartaglobe, 8/19)

- Danantara는 국영기업 통합 및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26년 202억불 (Rp360tril)의 순이익 달성을 목표로 설정, 기업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추진. Danantara 최고운영책임자 및 국영기업청장 Dony Oskaria는 수익성 개선과 국가경제 기여 확대를 위해 국영기업 통합·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
- 현재 약 290개 기업이 구조 개편을 진행, '26년 말까지 추가 약 300개 기업에 대한 정비 완료 목표. 부실기업 정리와 모·자회사 간 비효율적인 사업관계 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제고 기대
- Danantara는 국영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개선,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확대한다는 방침. 이를 통해 국영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Danantara,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²⁰⁾(Antara, 8/28)

- 인니 국부펀드 Danantara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한 데이터센터

1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31/47/2000014/prabowo-bidik-sertifikasi-11-juta-bidang-tanah-rumah-mbr-hingga-2029>

19) <https://jakartaglobe.id/business/danantara-eyes-20b-in-soe-earnings-by-end2026>

20) <https://en.antaranews.com/news/428800/danantara-eyes-wider-data-center-investment-as-demand-surges>

투자 확대 추진. 현재 약 45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나 신규 데이터센터 용량이 시장 수요에 의해 빠르게 소진, 이용을 위해 1년을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

- Danantara는 데이터센터 확대 및 AI 칩을 중심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계획. 영국 반도체 기업 Arm Limited와 칩 설계 개발 추진, 다수 국영기업도 참여
- 또한 향후 시스템·서브 시스템·지원 부품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다만 전력 공급능력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규제 절차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

○ Pramono, 자카르타 37건 투자사업 제시²¹⁾(Bisnis, 8/28)

-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은 총 37건의 전략적 투자사업, 총사업비 64.8억불(Rp115tril) 규모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26 자카르타 투자포럼(JIF)에서 제시. 주거·숙박, 상업·복합개발, 환승연계개발(TOD), 스포츠·레저, 산업·물류, 공공시설, 교통 및 워터프론트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회 포함
- 각 사업의 개별 추진이 아닌, 자카르타 도시개발과 연계해 주거와 교통, 상업시설과 공공공간, 기반시설과 신규 경제거점 등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특징. Pramono 주지사는 투자자들이 개별 사업뿐 아니라 자카르타의 차기 성장단계 구축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며,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개방 의사 표명

○ 인니, 자카르타·발리 국제금융센터 조성 추진²²⁾(Nikkei Asia, 8/25)

-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다변화를 위해 자카르타·발리 국제 금융센터 조성을 추진, 최대 277억불(Rp500tril)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은행, 보험, 핀테크 및 탄소시장·패밀리오피스²³⁾와 같은 금융산업 육성 계획

21) <https://jakarta.bisnis.com/read/20260828/384/1999519/pramono-tawarkan-37-proyek-investasi-jakarta-senilai-rp115-triliun>

22) <https://asia.nikkei.com/spotlight/asean-money/indonesia-s-28bn-bet-on-jakarta-and-bali-international-financial-centers>

23) 패밀리 오피스 : 고액자산가 혹은 가문의 투자 관리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

- 발리에서는 쿠라쿠라 발리 특별경제구역 등이 국제금융센터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며, 해외 금융거래의 국내 유치 및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다변화를 기대. 다만 싱가포르·두바이·홍콩 등 기존 금융허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법·제도적 안정성, 금융시장 경쟁력,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

○ 유료도로 투자 난항, 8% 경제성장 목표 차질 우려²⁴⁾(Bisnis, 8/31)

- 공공정책·환경 분야 전문가 Agus Pambagio는 유료도로의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성장 거점 접근성 확대 효과를 강조,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차질에 대해 지적. 유료도로 투자에는 장기간 투자금 회수 필요, 인니 유료도로협회(ATI)가 '26.7월 국회 제5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유료도로 운영기관 중 54%가 영업 수익성 적자, 37%는 영업이익 미창출, 9%만 현금흐름 흑자를 기록
- 유료도로 투자 위험 증가는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 지연은 물류비와 이동 제약을 장기화해 정부의 8% 경제성장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 100GW 태양광발전 사업, IPP 방식으로 민간투자 추진²⁵⁾(Tempo, 8/26)

- 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100GW 태양광발전 사업에 약 730억불(Rp1,292tril)이 필요, 민간기업 및 민자발전사업(IPP)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 동 사업은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초기 발전단가는 배터리 저장비용을 제외하고 0.05~0.06불/kWh 수준으로 예상
- 동 사업 추진 시 연간 최대 41.5억불(Rp73.9tril)의 에너지 보조금 절감이 가능할 전망, 민간 참여가 어려울 경우 Danantara를 통한 정부 투자도 검토. 한편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SR)는 100GW 태양광 발전소 구축에 기술·산업 역량 및 공급망 측면의 제약이 있는 만큼 현실적인 단계별 추진계획의 필요성 강조

2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831/45/2000235/investasi-jalan-tol-masih-berat-target-ekonomi-8-bisa-ikut-tersendat>

25) <https://en.tempo.co/read/2118316/how-indonesia-plans-to-fund-the-100-gwp-solar-project>

○ 100GW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관련 산업 도약 견인²⁶⁾(Bisnis, 9/1)

- 정부는 100GW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태양광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자립·주권 확보 목표, 약 639.3억불(Rp1,140tril) 투자 예정. 동 사업을 통해 연간 41.4억불(Rp73.9tril)의 에너지 보조금 절감 및 약 552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현재 연간 11~14GWp 규모의 태양광 패널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나, 현지 부품 사용 비중은 약 40%에 그쳐 인버터, 실리콘 잉곳·웨이퍼, 배터리 셀, EVA 필름 등 주요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 업계는 연간 약 5GWp 규모의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 수요 형성 및 태양광 공급망 전반의 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명확한 사업 추진 계획, 부품 국산화율 요건 충족, 투자 인센티브, 기술이전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요. 또한 소재산업과 BESS 기술 육성 강조

4. 녹색산업 동향

○ 인니 재생에너지, 구조적 개혁 필요²⁷⁾(Eastasiaforum, 8/21)

- 인니는 향후 5년간 100GW 태양광발전 구축을 목표로 하나, '25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15.8%이며 태양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 미만에 그침. 연간 약 180,000TWh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 잠재량과 대규모 양수발전 저장능력을 보유하였음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미흡한 상황
- 재생에너지 정체 원인으로서는 PT PLN의 석탄 의존도, 전기요금 규제,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투자 부족 등 언급. 또한 현 계획상 '34년 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10%에 그칠 예정
- 이에 Danantara의 대규모 태양광 투자,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26)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901/44/1999921/plts-100-gw-jadi-pengungkit-industri-energi-surya>

27) <https://eastasiaforum.org/2026/08/21/indonesias-renewable-energy-ambitions-require-structural-change/>

전력망 현대화 필요성 시사. 또한 PT PLN 관리·감독 절차 마련과 더불어 전기요금·보조금 등 전력 부문 구조개혁 필요

○ 인니 지열에너지, 88% 미개발 상태²⁸⁾(Bisnis, 8/30)

- 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열에너지 잠재량은 23,202MW이지만, 이 중 실제 지열발전소 설비용량은 2,776MW로 전체 잠재량의 88%가 미개발 상태. 제12회 인니 국제 지열 컨벤션 및 전시회(IIGCE) 2026에서 해당 수치가 발표되었으며, 향후 지열발전 투자 및 사업 확대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열에너지 개발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기대. 다만 지열에너지 자원의 실제 발전 설비 전환을 위해 정책 지원·투자·기술 확보 및 정부와 업계 간 협력 필요

○ Kepahiang군 지열 개발사업, 인프라 공사 착수²⁹⁾(Think Geoenergy, 8/18)

- PT PLN과 PT Cakrawala Kepahiang Geothermal(PT CKG)은 Bengkulu주 Kepahiang 지열 개발사업의 시추에 앞서 도로·교량 등 인프라 공사를 착수할 예정, '26.11월까지 완공 목표. 또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 Kepahiang군 정부, 지역협의체 및 지역사회 대표 등과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
- 개발 구역은 180MW 규모의 추정 잠재량 보유, '25.9월 PT Mitra Cakrawala International(PT MCI)이 지열에너지 탐사·개발 촉진 방식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 이후 PT MCI의 자회사인 PT CKG가 탐사사업을 맡아 추진, 현재 시추를 위한 인프라 건설 단계에 진입
- 정부와 사업 관계자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 주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 필요성 시사

28) <https://foto.bisnis.com/view/20260830/1999882/potensi-panas-bumi-indonesia-capai-23202-mw-sebanyak-884-belum-tengalap>

29) <https://www.thinkgeoenergy.com/infrastructure-work-to-begin-soon-for-kepahiang-geothermal-site-in-indonesia/>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신수도, 입법·사법 구역 개발 공정률 14% 달성³⁰⁾(Bisnis, 8/16)

- 신수도 누산타라 정부핵심구역(KIPP) 내 입법·사법 구역 개발사업은 '26.8.16 기준 약 12~14%의 공정률을 기록, '27년 말 준공 목표로 공사 진행. 동 공사에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정의 광장(Plaza Keadilan)³¹⁾ 및 모스크 등이 포함, 주요 국가기관 시설 조성 목표
- 입법·사법 구역은 신수도 내 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이전을 위한 핵심 시설로 개발 중이며, 관련 시설 공사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

30) <https://foto.bisnis.com/view/20260816/1996731/progres-pembangunan-kawasan-legislatif-dan-yudikatif-ikn-capai-14-persen>

31) 정의 광장(Plaza Keadilan) : 신수도 사법부 대법원 청사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인 공식 공공 광장 및 복합공간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샵하우스)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9월 예상)

○ (주요동향) 대우건설-SML, SHA 문구협의 계속

- 대우건설 싱가포르법인장(인니 겸임), 국토관 동반 협의
- 대우측 법무의견 SML 송부후 피드백 대기중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Offtaker), 대아이앤씨 등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대아이앤씨, 자금지원 FS신청, 승인
- ('26년 센터목표) FS 결과 검토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 (주요동향) 자금지원 FS 용역수행 준비

- 자금지원 FS 최종승인여부 국토부 확인 대기중
- 최종승인 되는대로 자금지원 FS 협약서 체결 및 용역 본격수행 (현재 사업주 자체자금으로 기초용역 수행중)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포르법인), Beijing Liando (중국계 디벨로퍼)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대규모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정부 부지이슈 해소 / 사업성분석보고서 초안 검토

- 정부의 국산차 생산공장 건립토지 확정 결과 수방산단 부지는 포함되지 않음: 정부이슈 해소 후 토지확보 추진 가능
- Savlis 작성 시장조사보고서 1차완성본 검토: 정부의 인프라지원, 수방 지역 인건비 경쟁력, 대규모 토지인 점은 긍정적
- 인허가, 용도변경, 테넌트 조기확보 원활히 진행시 유망성 높음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 계속

- 특이사항 및 변동사항 없음

⑤ 코리아센터 재건축 (신규)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코레이트자산운용 등
- (참여기업) 국내건설업계 참여검토중
- (사 업 비) 미확정
- (사업내용) 주인니대사관 옆 노후건물 철거후 복합시설 신축
- (추진현황) 코레이트자산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2) / 코레이트자, KIND 도시개발 사업실 ('26년초, '26.7) 협의 / KIND 센터 참여의향사 협의 ('26.2~3Q)
- ('26년 센터목표) 토지 개발권/사용권 확보가능여부 확인 / 딜파이프라인 등재

○ (주요동향) 참여의향사 면담 / 토지 확보여부 확인예정

- 코린도그룹, 대우건설, 코레이트자산운용 면담 및 교신 통해 각사 입장, 추진동기, 의지 파악
- '74년 확보된 토지로서 현재 변경된 법령하에서도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이 가능한지 우선파악 예정

⑥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마무리 단계

- 10월말 또는 11월초 준공식 개최 예정

2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8월 4주~9월 1주차)
 - 네트워킹 2건 : '26 국제도시계획컨퍼런스(ICAPPS) 참석자,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협의회
 - 사업개발 12건 : TOD 관련 현지 컨설턴트, 도화, GGGI, 코린도그룹, TOD 관련 현지 컨설턴트·시행사, 한국전력공사, PT GTI·롯데건설·현지 교민, 주택공사, GS건설, IFC, GGGI, 대우건설·시나르마스랜드
 - 대관업무 5건 : 국토관, 자카르타 투자 페스티벌, 경제조정부, 대사관, 수출입은행·대사관 국토관·아세안대표부 국토관